

제주의 꿈과 욕망을 풀어냈던 오름

강 문 규

(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여러 차례 제자들과 제주를 오가며 오름 경관을 연구·조명하기 위해 애쓰시는 발표자에게 제주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발표자는 제주관광의 역사에서 경관이미지가 연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피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출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토론자는 10여년 간 한라산을 탐사하며 접했던 견문과 몇몇 문헌을 통해 느낀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흔히 ‘제주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라고 한다. 360여개의 분화구로 이루어진 제주섬은 ‘오름의 왕국’이며, (지질학적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라산은 이들 오름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자 조종의 산으로 여겨왔다. 사실 제주섬 동쪽에서 바라보면 한라산은 마치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미닭처럼 오름들은 어미를 쫓아가는 형국이다.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제주에 관한 고문헌에는 “연(蓮)잎에 달린 이슬방울’, ‘둥그런 밥상위에 얹어놓은 작은 그릇’, ‘거대한 소가 웅크려 누워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성읍마을 주변의 오름 지명에는 ‘개(犬)오름’과 ‘비치미(飛雉尾)오름’이 있다. 사냥개가 쫓아가니 꿩이 꼬리를 보이며 날아간다는 의미다(부종휴 선생의 칼럼 중). 이들 오름은 바로 인접해 있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 꿩사냥이 행해지던 무대였다.

그러나 한라산은 제주인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이며, 사유의 지평이기도 했다. 맑은 날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보면 거대한 여신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백록담은 그녀의 얼굴이며,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동릉은 풀어헤친 머리로, 서쪽능선에는 그녀의 무릅과 심지어 발끝 모양도 드러난다. 신체는 한라산 절반에 해당할 정도다. 설문대 여신의 설화는 이런 한라산의 모습을 보며 만들어져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치마폭으로 흙을 담아 제주섬을 만들고 그 중심에 한라산을 쌓은 뒤 그 위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영실분화구를 아들 오백을 위한 죽을 쑤는 술이라는 삽화도 전혀 엉뚱하지 않다. 지붕과 나무를 타고 오르는 녀쿨을 보며 씨앗을 심고 그것이 하늘까지 자라 하늘의 옥황상제를 만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발상이다.

한라산은 제주인은 물론 바다 건너 밖 물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꿈과 욕망을 풀어내는 대상

이기도 했다. 한라산 위에 내려앉은 은하수를 보면서 한라산에 오르면 은하수를 잡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한라산의 이름을 ‘운한가라(雲漢可拏)’ 즉 하늘의 은하수를 어루만지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산이라고 해석했다. 신증의 한라산 지명 해설은 짚막하다. 하지만 상세한 해설은 후세 관리나 문인들의 시문을 통해 도내 외로 퍼져 나갔는데 임제 백호는 한라산 예찬의 선구자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577년 제주에서 쓴 시문을 묶어 『남명소승』을 펴내었다. 이 책에서 한라산은 노인성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불로초인 지초를 뜯어먹으며 백록이 무리지어 다니는 곳, 신선들이 사는 옥루가 있는 선계(仙界)라고 묘사하고 있다. 조선 최고의 천재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백호의 한라산 예찬문은, 이후 제주를 찾는 관리나 문객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그의 글은 군주 정조임금에게도 한라산에 관한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 18년(1794) 『정조실록』에 보면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한 제주 유생 12명을 불러 「...운한(雲漢)을 잡을 것 같다하여 진산의 이름을 한라산이라 붙였다하니 이 산에 내려온 신선은 몇이나 되는가(후략)」라고 묻는 대목이 등장한다. 정조임금에게 한라산은 은하수가 내리고, 그것을 사다리처럼 타고 신선들이 오르내리는 산으로 상상했던 것일까.

동시대를 살았던 제주의 선비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추사 김정희와 교우를 나눴던 제주선비 강사공은 ‘한라산부’라는 장편시를 남겼는데, ‘한라라고 한 것이 그럴듯하지 않은가/ 맑은 은하수가 스스로 가까워서/ 하라산과 그 상이는 한 치도 못되어서/ 직녀가 머리를 감고/ 앉아서 쪽 지을 수 있을 듯한 것은/ 저 은하수가 낮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높기 때문이라네.’라고 읊었다. 놀라운 상상력이다. 마치 한 여인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하수가에서 한라산을 디딤돌 삼아 머리를 감고 쪽을 짓는 모습을 심상으로 그려내고 있으니 말이다.

제주를 오갔던 어사들이나 선비들은 한라산을 은하수라는 강물을 타고 육지를 오가는 이들에게 ‘별뿔목(星槎)’을 타거나 내리는 천상의 나루터와 같은 존재로 상상해 왔던 것 같다. 그런 자취를 보여주는 시문도 많지는 않지만 더러 보인다. 알폰스 도테가 ‘별’이야기를 통해 샤를르마뉴라는 대왕이 하늘의 우윳빛 길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갔던 전설을 이야기 할 때 제주에서는 은하수를 타고 별뿔목이 오가는 이야기를 심상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오름에 대한 심미적 시선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70~80년대에 비하면 점차 개안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선인들의 탁월한 심미안과 상상력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한라산을 비롯한 오름의 미학에 관한 시선은 마뜩치 않다. 한라산의 가치를 밝혀줄 ‘고도를 기다리는’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끝)